십자가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

(역대하 29:12~36)

15.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새
16.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17.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팔 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십육 일에 이르러 마치고
18.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19.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서 속죄제를 드리고 다윗의 악기들로 일컬어지는 악기들이 동원되어 연주가 되며 번제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순서를 가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일반적인 연수나 세미나가 이론을 전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워크숍(workshop)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실천적 차원에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강릉을 찾아오시면 주로 말씀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되고, 목사님들은 목회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사역에 참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님들과의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말씀을 교인들이 힘들어 한다고 하면서 목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십자가 생활화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과 즐거움을 간증하시는 분들입니다.

같은 말씀의 기조위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왜 한쪽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한쪽에서는 즐거움을 고백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목회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짚이는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전한 설교내용의 주제들이나 설교 속에 등장한 소재들이 저의 언어 속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최근에 전한 오늘의 번제 말씀에 관한 주제나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설교 본문과 관계되는 부분을 오늘의 번제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설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고백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최근에 설교된 오늘의 번제 말씀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번제를 따라 가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오늘의 번제 말씀이 설교 사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저로서는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정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과제로 삼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단지 말씀사역을 쉽게 풀어나가시기 위한 것으로도 저는 감격하고 황송할 따름이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바라기는 목사님들 자신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원죄의 습성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위한 워크숍이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번제는 삶 속에 나가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것인데 십자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일곱 가지 습관으로 살고 자기계발서를 참조하거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하나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이론적으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날마다 반복되는 워크숍이 없다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번제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재현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교리와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번제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신앙의 사건으로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되고,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할 때에 삶 속에 나가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워크숍은 실제 업무에서 부딪힐 일들에 대해 앞당겨서 실천적으로 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한 학습내용을 실제 업무현장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번제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워크숍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삶의 현장으로 또는 목회현장으로 갈 때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기쁨은 자연히 교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목회가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오늘의 번제 말씀을 설교에 참조는 하시지만 자신의

십자가 생활화에는 참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되지 않아서 내 속에 기쁨이 없다면 이론적으로 죽으라는 이야기의 반복을 교인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해도 그 죽음이 우울한 죽음이 아니고 괴로운 죽음이 아니고 짜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이 오늘의 번제 목적인데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거의 십자가 생활화의 즐거움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이상하게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이유는 말씀사역의 과제 수행을 위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워크숍 과정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의 번제가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워크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와 재정비, 신앙의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히스기야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교의 요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 돌리기를 통해서 국면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얼굴 돌리기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겠다는 소원을 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소원,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소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고 싶다는 소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얼굴 돌리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소원하다보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 장악되어서 모든 국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설교를 하고나서 실제로 성전을 정화하고 모든 기구들을 재정비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또 자원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일련의 워크숍 매뉴얼이 됩니다.
이 워크숍 과정을 날마다 실천해 나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상번제가 아침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사는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성전에서 일년 된 어린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번제의 의미는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삶의 현장에서 죽어야 될 나의 모습을 어린양을 통하여 워크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삶에서는 어린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성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하늘을 살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워크숍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워크숍의 매뉴얼은 이미 다 아는 바이지만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19절을 보면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는 곧 더러움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주술적으로 단순히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것인데 바로 더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그 전체를 감싸는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없고 하나님 혼자 계신다면 거룩하심에 대한 언급도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곧 '깨끗하시다'는 것인데 깨끗함의 절정을 뜻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더러움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성전의 생활화, 십자가 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의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은 극복되어서 성결하게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경계되어야 될 상태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곳을 가든지 내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 청결함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음에 계셔야 될 분이 계시지 않으시고, 대신에 돈 자식의 형통 건강 출세 등이 들어와 있다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얀 실크블라우스에 김치가 떨어졌다면 더러워진 것입니다. 김치는 입에 넣어서 먹는 깨끗한 것입니다. 하얀 실크블라우스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지면 끔찍한 더러움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더러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에 이러한 더러움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것이 속죄제입니다.

창조시의 우리 마음은 변화산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변화되신 흰색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을 때의 흰색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아 더러움이 생기면 그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또한 그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더러움의 확산이고 재생산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식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르친다면 자식에게 더러움을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죗값으로 남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더러움의 자각이 있어야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죄의 특성상 끊임없이 더러움을 향해 나가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속죄제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돈이 생각나고 문제들이 생각나서 세상이 가득 담긴 더러워진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번제 말씀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고 외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자는 사이에도 더러워집니다. 꿈에서도 하나님의 꿈이면 좋은데 온갖 세상 꿈을 다 꾸고 있습니다. 칼 융(Carl G. Jung)의 말대로 잠들었을 때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졌으면 끝이 아닙니다. 번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이 오벧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성으로 옮겨올 때에 악기를 든 자들로 하여금 행렬과 함께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 때에 나팔과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연주하도록 하였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도 악기를 동원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악기가 요란하게 울리면 다른 소리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모든 관심과 주의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의 죽음이요, 주의의 죽음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을 향한 관심의 죽음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워크숍의 의미에서 번제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선민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선민의 사명입니다. 자식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키는 행동입니다. 직장문제가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미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 더러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키는 행동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죽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담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속죄제는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내 죗값을 없애는 것입니다. 더러움 가운데 생각했던 것과 행동했던 것들의 죗값이 깨끗해지는데 이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과정을 워크숍 매뉴얼로 삼기 위해 상번제가 드려지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제를 드리게 되고 화목제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상번제를 기억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심만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만족하는 과정을 워크숍으로 학습해봅니다. 그리고 삶에 나가서 그 학습한 내용을 반복할 때에 삶의 현장은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가 뜻하는바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라는 말씀대로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아침마다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십자가 생활화를 실천해 나가는 것인데 이게 전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남은 생을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한 번 살아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의 데일리 워크숍을 통하여 연습하고 무장하게 하시고 그 연습한 대로 삶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실천함으로서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독특하고 은총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